

한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 이름, 양파(이은진·38). 10~20대에게는 가수로서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의 애절한 노래를 들으며 감성을 쌓아온 30~40대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이름이다.

‘여고생 가수’ ‘원조 R&B여왕’이라는 수식어로 ‘애송이의 사랑’ ‘아디오’ ‘사랑 그제 뭘데’와 같은 히트곡을 잇따라 내놓았던 가수 양파가 8일 싱글 ‘끌림’을 내고 오랜만에 가요계로 돌아왔다. 6년이라는 긴 공백을 끊은 양파를 최근 서울 서교동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 차 보였지만,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까닭인지 알 수 없는 긴장감도 엿보였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는 짧은 대답의 여운에서는 기쁨과 아쉬움이 한데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소속사 문제로 아픔이 많았다. 문제가 생겨서 활동을 중단하고 마음을 다 잡아 새로운 회사를 찾았다 싶으면 또 회사가 공중분해가 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됐다. 혼자서도 일을 해봤는데 감당하기 어려웠다. 간간히 시간을 보내다가 10년 전 5집 프로듀서로

만난 김도훈 작곡가와 손을 잡았다. 그게 2년 전이다. 예전에는 ‘소속사 문제’가 생기면 ‘왜 나만 이런 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됐다.”

의도치 않은 공백이 반복되다보니, 지난날들을 돌아보면 아쉬움만 더 크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듯 노래도 그나이에 부를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 이를 놓치고 당시 낼 수 있는 목소리를 흘려보내고 말았다.

“정말 부지런히 음반을 내도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아무리 외부적인 요인(소속사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제 성격도 문제였다. 완벽한 결과물을 선보여야 한다는 압박관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생기는 ‘결정장애’도 큰 요인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후회만 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럴 성격도 아니었다. 이번 싱글을 시작으로 매달 신곡을 1곡씩 발표하고 이를 모두 합쳐 정규 앨범을 선보일 계획이다.

“20대부터 30대까지 방황의 시간이 길었다. 한때는 노래를 부르기 싫었고, ‘양파’라는 이름조차 듣기 싫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네 이름이 양파인 것을 고마워 하라’고 하더라. 나처럼 띄엄띄엄 나오는 애가 이름이라도 양파라서 익숙하게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다는 얘기가. 진짜 절실히 느꼈다. ‘애중의 이

름’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됐다.”

다잡은 마음가짐은 노래 창법도 바꾸게 만들었다. 소리를 내지르는 듯한 고음이 양파만의 특색이었다면 이번에는 최대한 담담하게 부르려고 노력했다.

“가창이 아닌 감정을 전달하는 소리를 만들어보고 생각했다. 사운드도 이 계절에 딱 어울리도록 쓸쓸하게 표현했다. 어디까지 높이 올라가나 경연하는 듯한 ‘지르기의 향연’도 없고, 무한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 않을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새로운 양파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신곡 ‘끌림’은 브리티시 팝 발라드로, 기타와 스트링의 선율이 더해져 기존 양파의 발라드들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불 났간 사춘기 같은 여고생의 풋풋한 감성은 이제 찾아볼 수 없지만, 한층 성숙한 양파의 목소리는 그대로다. 하지만 이제 그도 “불혹을 앞둔 나이”다.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와 달리 40대를 앞둔 지금, 앞

으로 닥쳐올 시간들이 기대되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20대에는 꿈을 향해서만 달려갔다. 30대가 되고 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열심히 살았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여기 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노래라고 생각한다. 노래를 통해 나도 위로받고, 노래를 듣는 사람도 위로받을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과거 절정의 인기를 누리며 살았던 시간이 이제 그에게 뿌연 안개와 같은 느낌이다. “너무나 바빠서 기억의 한 토막이 잊혀진 추억들”이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는 실감도 못했지만, 이제는 작은 행복이라도 충분히 느껴면서 즐기며 살고 싶은 그는 그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더 여유로워졌다. 양파는 스무 살 때부터 매년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해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혼기가 찼다고 해서 부모님의 압박이 없다. 다행이다. 어느 순간 내가 결혼이라는 제도와 어울리는 사람인가 싶더라. 결혼은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고 해야 할까. 이 또한 때를 더 기다려봐야겠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부지런히 음반 내도 부족했던 시간들  
 소속사 문제로 아픔 많아... 이제 안정  
 듣는 사람도 위로받는 노래 부르고파

## 6년 만에 새 싱글 '끌림'으로 돌아온 양파

# 가창 아닌 감정으로 위로의 노래로... 새 양파 기대하세요



“더 이상의 공백은 없다.” 가수 양파가 찾은 공백을 끝내고 매달 신곡 1곡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에 나선다. 긴 방황의 시간 끝에 그는 한층 여유워진 모습이다.

사진제공 | RBW

### 연예뉴스 HOT 5

#### 구창모·김혜선, 역대 세금 체납



구창모

가수 구창모와 연기자 김혜선이 역대의 체납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체납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구창모와 김혜선이 포함됐다. 그를 송골매 출신 구창모는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4억7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을 비롯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과 함께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 그룹 회장,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도 국세를 체납했다고 밝혔다.

#### 복싱스타 파퀴아오 '무한도전' 출연



파퀴아오

MBC '무한도전'이 세계적인 복싱 스타 매니 파퀴아오를 초대한다. '무한도전'의 멤버 유재석, 정준하, 박명수, 하하 등은 21일 매니 파퀴아오와 함께 녹화를 진행한다. 파퀴아오는 이에 앞서 20일 내한할 예정이다. 멤버들 가운데 9일 방송한 수능 특집에서 50점 만점의 문제로 최하 점수를 받은 하하와 박명수, 양세형이 파퀴아오와 스파링 대결을 펼친다. 필리핀 출신 매니 파퀴아오는 복싱 사상 최초로 8체급에서 10번이나 타이틀을 획득한 세계적인 복싱 스타다. 현재 필리핀 상원의원이기도 하다. 한편 '무한도전'은 축구 티에리 앙리를 비롯해 테니스 사파코바, NBA 스테판 커리 등 해외 스포츠 스타들을 출연시키며 시청자 시선을 모았다.

#### MBC 뉴스데스크 새 앵커에 손정은



손정은 앵커

손정은 앵커가 MBC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는다. MBC는 11일 "배현진 앵커의 하차 이후 18일부터 개편되는 '뉴스데스크' 진행을 손정은 앵커와 박성호 기자가 맡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말 '뉴스데스크'는 김수진 기자가 진행한다. 손정은 앵커는 2008년 김주하 앵커에 이어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MBC 총파업 이후 방송 활동을 하지 못했다. 박성호 기자는 MBC 기자협회장을 지냈으며, 2012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최근 5년 만에 복직했다. MBC는 8일 최승호 사장 취임과 동시에 배현진 앵커를 '뉴스데스크'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보도국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수지, 불우이웃에 1500만원 기부



수지

톱스타 수지가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 구매에 써달라며 구호단체 생명나눔실천본부(이하 생명나눔)에 후원금 1500만 원을 기부했다. 생명나눔은 4일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제4회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를 열었고, 수지의 후원으로 마련한 솜이불 210채와 라면 210박스, 쌀 등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수지는 지난해 12월 '제3회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와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수지는 데뷔 이후 줄곧 형편이 어려운 학생, 보육원, 저소득층, 소아암, 백혈병 환우를 위한 기부 등 꾸준히 불우이웃을 위한 선행을 해왔다.

#### 신현수·조우리, 신인 배우 커플 탄생



신현수



조우리

KBS 2TV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 신현수의 남동생 역할로 출연중인 신현수(28)가 동료 연기자 조우리(25)와 교제중이다. 신현수 소속사 월엔터테인먼트는 11일 "두 배우가 연인으로 만나고 있다. 지인들과 어울리며 친분을 이어오다 최근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3년 단편영화 '백화점'으로 데뷔한 신현수는 JTBC '청춘시대' 시리즈, MBC '군주'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조우리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미취급 레이턴트 역을 맡아 사이니 온유와 좋은 호흡을 보여 호평을 얻었다.